

碩士學位論文

『유리 동물원』 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에 나타난
현실과 환상의 갈등 양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印 福 松

2005年 8月

碩士學位論文

『유리 동물원』 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에 나타난
현실과 환상의 갈등 양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印福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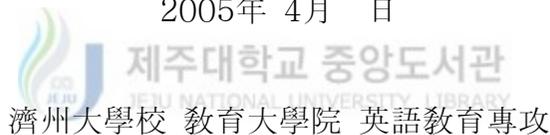
2005年 8月

『유리 동물원』 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에 나타난
현실과 환상의 갈등 양상

指導教授 宋 一 商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月 日



提出者 印 福 松

印福松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유리 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타난 현실과 환상의 갈등양상*

인 복 송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송 일 상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공통주제는 등장인물들의 환상과 현실 간의 갈등이다. 그의 극중 인물들 대부분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여 좌절과 갈등을 겪게 되는 도망자들이다. 특히 윌리엄스는 남부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갈등을 면밀히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인물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이다. 『유리동물원』에서 등장인물 아만다(Amanda), 로라(Laura), 톰(Tom)은 모두 자아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며 방황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만의 환상을 꿈꾼다. 이들 윙필드(Wingfield) 가의 가족들은 그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피해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를 토대로 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려 애쓴다. 또한 현실에 대처하기를 거부한다.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을 숨길 스스로의 환상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항하려 애를 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윌리엄스는 서로의 이해와 애정의 기반 위에서 비록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상징을 통해 일말의 인간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는 윌리엄스의 대표적 작품으로 남부의 몰락한 귀족 출신인 블랑쉬(Blanche)와 20세기 산업화된 물질주의적 인물을 대변하는 스탠리(Stanley)와의 갈등에 주요한 모티브를 두고 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스탠리의 세계 안에서 낭만적이고 환상에 젖은 블랑쉬가 겪는 갈등이 상징을 통해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갈등은 인간내면의 동물적 요소와 문명화된 요소 사이에 갈등이자 블랑쉬의 이상주의와 스탠리의 물질주의의 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상주의와 물질주의 사이의 양면적 이중성에서 비롯된 현실과 환상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블랑쉬의 이중성은 문화적요소와 야만적 요소사이에서 인간의 조화되지 않는 분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블랑쉬의 운명의 불가피성, 그녀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성에 대한 이중적인 성격 등도 비극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 윌리엄스는 이 작품에서 블랑쉬라는 한 여성의 비극적 갈등을 통해 현대 기계문명이 발달로 빚어지는 인간성의 상실을 시사하고 있다.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의식은 윌리엄스 작품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윌리엄스의 두 작품은 모두 남부시절의 젊음, 사랑, 순수함 그리고 대저택과 가족의 운명들이 부서진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여주인공들의 원인과 갈등들, 그들은 과거 환상의 노예들이고 현실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한 남부여성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환상속의 은신처를 찾으려 애를 쓰게 된다. 그들 스스로가 현실과 진실을 직시하는데 실패하므로 점점 자신을 파괴로 이끌어 간다. 이와 같이 윌리엄

스가 암시한 현실과 환상사이에서의 갈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도덕극 작가로서 윌리엄스는 현실의 어두운 면이나 애처로운 면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는 현실세계에서 살길을 잃고 고독하게 구원의 길도 없이 인물을 쫓아, 절망적인 현실과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영원히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윌리엄스는 각자가 처한 좌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현실과 조화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남부 세계의 사회적 특성	6
III. 현실과 환상의 내면적 갈등 : 『유리동물원』	13
IV. 현실 도피의 비극적 갈등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29
V. 결 론	42
참 고 문 헌	45
Abstract	47



I. 서론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 1911-1983)는 주제나 등장인물로 미루어 보아 시인적인 필체로 심리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개인의 내적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낭만비극(Romantic tragedy)을 주로 썼다¹⁾. 그는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불안한 시대상황과 미국남부라는 특정한 정신적 토양을 배경으로 독자적 문학세계를 구축해 미국연극의 전통을 확립하면서 유진 오닐(Eugene O'Neill)이후 미국연극계에서 최고의 극작가로 인정을 받았다. 예리한 현실감각과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인간의 의식 내부에 흐르는 심리를 통찰하여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심리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미국 연극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다양하게 표출했다.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였고 농경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지역적인 사회에서 국가적인 사회로 변화하면서 대도시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극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실주의적 사회 풍자와 저항의식 그리고 유럽 연극의 지나친 기교의 모방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많은 사상적 기류가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국제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의 관심이 주관적이며, 일차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적 의미를 탐구하게 되어, 현대생활의 혼돈과 기계화에 대한 절망과 절규에 귀 기울이던 때이다. 이전 세대의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교의 영향 하에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으로 당시의 세계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그들의 체험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윌리엄스의 작품 배경은 주로 미국남부 지방인데 단순한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역, 더 나아가 세계를 축소해 놓은 인류 보편적인 장소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인물이 겪게 되는 갈등이나 심리 상황을 사라져가는 옛 남부문화 전통인 아름다운 교양과 지성에 빚대어 빠

1) Allen, Lewis. *The Contemporary Theater: The Significant Playwrights of Our Time*, (New York : Crown publisher), p. 342.

르게 발전하는 현대기계 물질문명의 새로운 남부문화와의 갈등으로 다루었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남부의 환경 안에서 대사, 주제, 장면 그리고 인물 따위의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나의 후기 희곡들은 소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용 된다.....나는 남부에 대한 사랑을 썼다. 그러나 나는 남부 인들이 내 작품 안의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것을 과멸시킨 힘에 관하여 쓴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 남부에 대한 아쉬움에서 기인한 것이다²⁾.”라고 고백한바 있다. 그러므로 윌리엄스가 위대한 극작가로 성장하기까지는 그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그의 극에 일관성 있게 흐르는 배경이 된 남부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윌리엄스 자신이 남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곳에 대한 글을 쓴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그는 남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는 우아함과 고상함을 바탕으로 한 문화이며,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남북전쟁 이전까지의 남부는 대규모의 플랜테이션과 백색 둥근기둥의 회랍 식 저택을 배경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남녀들의 아름다움, 젊음, 로맨스가 가득한 귀족적인 세계였다. 그러나 남북전쟁은 이러한 낭만적 세계를 급속히 황폐시키고, 풍요로웠던 문화의 사회적, 정신적 붕괴와 가치관의 대 혼란을 초래했다. 이 전쟁으로 인한 남부세계의 몰락은 아름다움과 젊음, 그리고 로맨스의 상실을 모두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운명을 나타내는 하나의 작은 세계로서 그의 문화적 전통이 미국의 남부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그 자신이 남부출신으로 남북전쟁 이후 몰락한 남부후예들의 자아상실 위기에 처한 딜레마를 현대인의 실존상황으로 보편화시켜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외적, 내적 경험들을 무대화한 것이다.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중심인물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들이 ‘도피성 인물’(fugitive kinds)이라는 것이다. 주로 그들은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현재 존재할 수도 없는 전쟁 전의 남부에 대한 그들만의

2) Ruby, Cohn. "The Garrulous Grotesques of Tennessee Williams," *Tennessee William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tephen S. Stanton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p. 45.

사회적 관점을 대개 고집 한다³⁾.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실세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술을 마시거나 과거 기억속의 아름다운 시절에 머물거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꿈의 세계로 도망치려고 한다. 무자비한 현실세계를 벗어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과거로의 도피는 자신의 기억 속의 순수함과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병적으로 자꾸만 그 안의 환상의 세계로 파고드는 것인데,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1945)의 로라(Laura)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The Streetcar Named Desire*)(1947)의 블랑쉬(Blanche)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실세계에서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또 다른 세계로 도피를 계속하는 인간상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패배와 절망과 소외의 상태에서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자신을 그 안에 고립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들은 잔인성, 불의, 부패, 의심, 증오, 착취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의 희생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작품은 인간이 처한 폭력적인 현실과 악의 현상, 그리고 인간의 파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명서가 되어 주고 있다. 윌스(Weales)는 인물들을 도망자로 보고 그들이 지닌 특징을 예술가, 정신이상자, 장애자, 특이한 성적 취향의 소유자, 이방인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⁴⁾. 박실(Boxil)은 방랑자와 타락한 귀족으로 나누어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⁵⁾. 그들은 모두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끝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저마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강력한 반대자나 파괴자, 그리고 잔혹한 환경과 대결하면서 결코 자신의 존재를 비하시키지 않는다. 그들을 도망자와 도피자로 보는 일부의 부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 근거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이상과 현실, 가치와 몰가치, 적응과 부적응, 죽음과 삶, 현실과 환상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미흡한 탐색 또는 편견에 치우친 혹

3) Hedwick, Bock. "Tennessee Williams, Southern Playwright," *Essay on Contemporary American Drama*, eds. Hedwick Bock and Albert Wertheim (Munchen : Max Huer Verlag), p. 5~7.

4) Gerald C, Weales. *Tennessee Williams*. University of Minnesota Pamphlets on American Writer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53.

5) Roger, Boxill. *Tennessee Williams* (London: MacMillan). p. 34.

백의 판정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도망자요 도피자이지만 소속감, 연대감, 적응, 조화 그리고 타자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욕구와 자아 실현욕구, 자유의지도 강렬하다. 그들은 자신이 구축한 세계의 주체이면서 때로는 다른 세계의 주인공에 대한 협조자이자 반대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냉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무기 역시 현실 착오적이며 환상적 도구에 불과하다.

윌리엄스는 군더더기 없이 잘 짜여진 구성보다는 각 인물의 심리적인 성격 창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더욱 보완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연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즉 음향, 조명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의상(색깔), 투영되어지는 배경, 그리고 자막 등의 파괴적인 기법이다. 이와 같이 상징적인 조명과 대, 소도구의 사용,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채색되어 있는 의상과 배경의 색깔 이미지는 인물의 폭력, 술, 섹스(sex) 등의 현실의 가장 직접적인 실재를 그려 냄과 동시에 좌절하고 소외되어가는 인물의 억눌린 심리적 욕구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기계문명과 물질주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야기 시키는 정신적인 혼란과 위기의식을 외형적 묘사뿐만 아니라, 섬세한 심리 묘사로써 표현하고 있다. 윌리엄스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노스텔지어인 옛 남부사회의 존재를 붙잡으려 하고 또 그곳에 머물고자 한 것이다. 기계문명의 발달과 쾌락주의의 새로운 남부문화 안에서 사라져 버린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옛 남부사회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억눌린 욕구를 표출시킨다. 외로움과 소외감, 대화의 단절, 오직 쾌락만이 존재하는 물질 만능의 세태를 지적하며 그 안에서 호흡하는 인간의 위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안주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창조한 환상의 세계 속에서 힘없이 허우적거리다가 끝내는 파멸해 가는 인물을 통해 윌리엄스는 때로는 애처로운 동정의 시선으로, 또 때로는 냉혹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명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의 자기모습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과 소외감, 좌절과 공포를 드러내다가 환상 속에 안주하거나 좌초하는 인물들은 특히 윌리엄스 초기작품에서 전형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불구자들이다. 둘째, 과거와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후 그들만의 꿈의 세계에서 평화를 찾는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가치관의 부조화로 인해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인생의 좌절이나 파멸을 맞게 된다. 넷째, 좌절의 원인으로 남부출신 여성들은 천성적으로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현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줄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공통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물설정을 통하여 윌리엄스는 인간심리의 내적현실과 아울러 현대인의 불안의식과 절망적 상황, 소외, 좌절, 외로움 등을 표현하려고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세계를 ‘금방 깨질 것 같은 세계’, ‘공포의 세계’, ‘잃어버린 꿈의 세계’, ‘시적 비전의 세계’로 나타내고 있다⁶⁾.

본 논문은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나타난 환상과 현실의 갈등문제를 인물과 상황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남부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 다음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의미를 두 작품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소외된 현대인의 단절된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아의 벽을 극복하려는 인물들의 갈등의 모습을 통해 인간 삶의 참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6) Robert E, Jones. "Tennessee Williams Early Heroines," *Modern American Tragedies*. (New York: Macmillian), p. 112.

II. 남부세계의 사회적 특성

윌리엄스의 작품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작가 자신이 바로 남부 출신이라는 것과 그가 왜 그토록 남부 소재에 충실했는가 하는 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다. 특히 그는 남부의 두 가지 특별한 면, 즉 남부의 몰락과 남부의 과거를 거의 모든 작품의 주제와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의 작품의 배경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풍요했던 과거 남부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남부는 남북전쟁의 패배자가 거주하는 곳일 뿐 아니라 남부의 농업자본이 북부의 산업자본에 주도권을 빼앗긴 곳이다. 북부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설 땅을 잃어버린 남부의 인물들은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생애는 이해와 동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척박한 새 사회질서와 규범들에 의해 과거의 낭만적 환상은 산산이 부서진다.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사회는 노예제도에 기초를 둔 엄격한 사회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교양 있고 재산 있는 귀족계급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한 남부사회가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종래의 가치관은 사라져 버린다. 노예해방으로 대규모의 농장이 해체되자 그 결과 남부귀족은 어떤 선택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로버트 존스(Robert E. Jones)는 남북전쟁 이후 남부귀족 계급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길로 첫째는 신 남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둘째는 북부나 서부로 이주하거나, 셋째는 남부에 그대로 남아서 옛 가치관과 전통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소외되고 몰락해 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⁷⁾.

윌리엄스의 극히 비정상적인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소위 “남부 신화” 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남부라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되는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윌리엄스는 전통적인 남부작가로서 미국 남부를 이제는 잃어버린 낙원으로서 언제나 의식하였으며, 특

7) *Ibid.*, p. 210.

히 남부의 역사와 신화를 현실과 이상향 사이를 명상하는 자신의 작품 주제로 삼았다.

또한 남부와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전쟁 전과 후의 남부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새로운 황금시대를 가져올 새로운 인간의 출현이라는 아메리카의 꿈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윌리엄스는 작품에서 남부사회와 역사를 회상하며 옛 남부에 대한 낭만적인 꿈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유리동물원』의 아만다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쉬는 옛 남부에 대해 매우 감상적인 견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윌리엄스는 바로 이들을 통해 남부신화의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부인에게 남북전쟁 전의 시절은 자비로운 삶의 이상을 상징하고 개인의 영예가 되어 모든 영역의 경험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더구나 남부의 전통은 한 가족의 전통이다⁸⁾. 아울러 아만다와 블랑쉬에게 남부는 젊음과 사랑 그리고 순결 등 모든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부의 이미지는 실제와는 다르며, “극적 목적”을 위한 신화적 해석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도 있다.⁹⁾

윌리엄스는 이러한 남부인의 전통이라는 기반 위에서 그의 대표작인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쓰고 있으며 특히 그의 예술의 출발점으로 “대농장 신화(Plantation Myth)”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터(Porter)는 다음과 같이 “대농장 신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대농장의 신화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는 잘 알려져 있다. 집은 대저택이고 회고 6개의 기둥이 받치고 앞마당엔 잔디 정원인 펼쳐진다. 또한 노예들의 오두막집, 목화밭 또한 필수다. 대저택의 남자 주인은 귀족이고 자부심이 대단하며 용감하다. 여주인은 가정적인 미덕을 겸비하여 풍기는 교태는 결코 천박하지 않다.¹⁰⁾

8) Thomas, Porter. *Myth and Modern American Drama*(Ludhina: Kalyani Publishers), p. 158.

9) Joseph K, Davis. "The American South as Mediating Image in the Play of Tennessee Williams." *American Drama and Theater in the Twentieth Century*(Go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p. 205.

10) Porter. p. 157.

『유리동물원』과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아만다와 블랑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남부는 사실 한 지방의 역사이며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작가 윌리엄스에게나 그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전설이다. 그의 등장인물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가공된 잃어버린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심리적인 충동에 사로 잡혀 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애착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추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미국 남부라는 작가의 주제를 잘 반영시켜 주고 있다. 아만다의 몸은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의 작고 초라한 아파트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환상을 통해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이라는 대농장의 생활에 머물러 있으며,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사건은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뉴 올리언즈(New Orleans)의 불란서 구역에서 전개되지만 블랑쉬의 환상의 세계는 그녀의 상징이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상실의 장소로 미시시피(Mississippi)의 대농장인 벨 리브(Bell Reve)에 고착되어 있다.

이들은 20세기 산업사회의 물질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의 사고는 과거 속에 고정되어,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회피하며 무 시간(timeless)속에 살아가려는 인물들이다. 옛 남부의 전통을 동경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방황하고 있는 아만다와 블랑쉬는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전설적인 세계인 옛 남부 속에 살아가며, 과거의 꿈을 회상함으로써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고자 하는 유별난 기질을 가진 남부여인 들이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한때 누렸던 존경과 부의 상징인 블루 마운틴과 벨 리브의 대농장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의 전통과 관습을 현재에 적용시키고자 하나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만다. 아만다 윙필드와 마찬가지로 블랑쉬도 남부에서 성장해 온 생활방식에 영향을 받아 행동은 물론 사고조차 비현실에 얽매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¹¹⁾. 이처럼 옛 남부의 유산인 블루 마운틴과 벨 리브에 대한 기억은 이들 주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유리동물원』의 아만다는 남편이 버리고 떠나버린 가족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세인트루이스의 빈민촌에서 초라하고 불안한 생활을

11) Davis. p. 171.

탈피하기 위해 처녀시절인 옛 남부의 대농장 시절을 회상한다. 그녀의 다음과 같은 과거에 대한 묘사는 세련된 사고모임과 풍요한 생활에 지배되고 있던 옛 남부의 상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블루 마운틴에서 -엄마는 손님을 맞았지 열일곱 명이나 됐어. 때로는 손님들이 앉을 의자가 부족했지.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접는 의자를 가지고 오게 하인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¹²⁾

블루 마운틴 시절의 사고방식을 아들 톰(Tom)과 불구인 딸 로라에게 적용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사 방문객인 짐(Jim)을 위해 로라를 화려하게 치장시키는 일, 그리고 자신이 짐에게 보이는 교태 등은 모두가 옛 남부 여인이 지니고 있던 생각과 관습이다. 특히 집안을 가꾸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아만다의 초라한 현실을 숨기려는 의도이며 블루 마운틴 시절의 우아함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이다. 또한 아만다의 인생관은 전쟁전의 청교도 정신에 젖어 왜곡되어 있다.

툰이 읽고 있는 로렌스(D. H. Lawrence)의 소설과 같은 것은 음란한 것으로 여겨 당장 도서관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만다는 화를 내며 옛 남부 시절의 청교도 정신을 상기시킨다.

사람은 본능적이라고! 나에게는 본능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본능이란 사람들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짐승에게나 속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⁴⁷⁾

과거 블루 마운틴 시절에 누리던 귀족주의 정신은 그녀의 환상적인 기억에 의해 왜곡된 나머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행동을 심히 혼란케 한다. 환상을 통해 과거 대농장 시절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아만다의 독선은

12) Tennessee Williams, *The glass Menagerie*, Penguin Books. ed. Martin Browne, (New York: Penguin Book. 1977), p. 237

로라로 하여금 신체적 불구에 대해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며 더욱 내성적이 되게 하고, 톰의 소외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리동물원』은 새로운 사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주인공이 옛 남부의 전통이나 관습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 따라서 환상적인 남부귀족의 가치관이 산업사회의 물질적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데서 빚어지는 비극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남부인의 고뇌를 극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쉬도 역시 아만다와 같이 블루 마운틴과 같은 과거 편집증 대상인 벨 리브라는 대농장을 갖고 있다. 벨 리브 역시 블랑쉬의 꿈이자 이상의 대상이며 새로운 물질주의 산업사회에서 그녀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고 있다. 블랑쉬는 사라져가는 남부 귀족의 후예로서 친척들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대농장 벨 리브를 잃어버리고 그녀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던 남편 앨런(Allan)의 자살과 그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저지른 플라밍고 호텔에서의 창부 생활, 학생을 유혹했던 로렐 학교에서의 해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최후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동생 스텔라(Stella)의 집으로 오게 된다. 그녀의 현재의 소심하고 예민한 정신 상태는 대부분의 이러한 과거와 연관된 죄의식에서 야기되고 있다. “우리는 블랑쉬의 과거가 현재에 끼치는 영향을 알지 못하면 그녀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¹³⁾라는 당대 최고의 연출가이며 감독인 엘리아 카잔(Elia Kazan)의 지적도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블랑쉬는 현실의 사실을 부정하는 가운데 몰락 이전의 남부 귀족사회의 환상에 몰입한다. 그녀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옛 남부의 뛰어난 우아함과 세련미를 지닌 남부의 숙녀라는 의식을 견지함으로써 보상 받으려고 한다. 작품의 대부분에서, 블랑쉬는 과거남부의 숙녀 역할을 신조로 삼고 있다. 제 1장에서 여동생의 집을 찾아간 언니의 입장으로서 여동생 부부에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숨긴 채 행동하는 방패 역할, 제 3장에서 정숙한 숙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역할, 제 6장에서 사랑하는 미치

13) Elia, Kazan. "Note for *A Streetcar Named Desire*," *Director on Directing*, ed. Allan S. Downer(Chicago: U of Chicago P), p. 364.

(Mitch)를 얻기 위해 정숙한 숙녀 역할을 계속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남부 여인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희생자가 된다¹⁴⁾. 그녀의 이러한 낭만적 과거인 벨 리브에 대한 집착은 변화를 의미하는 현실에서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영원한 젊음 속에 머물려는 의지에 찬 노력이다. 자신의 초라한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아직도 남부의 귀족적 특질을 갖고 있는 블랑쉬에게 벨 리브는 비록 몰락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운 꿈에 대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환상의 소유자는 항상 현실세계와 대립하기 마련이다. 특히 신·구 남부의 대립 양상은 윌리엄스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블랑쉬의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현대의 산업화된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스탠리와 대결이다. 스탠리는 직선적이고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그의 아내 스텔라와의 관계도 육체적인 만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이상의 가치는 추구하지 않는다. 블랑쉬가 사라져 가는 문명의 마지막 잔재라면 스탠리는 보이는 것만을 쫓는 새로운 문명의 선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블랑쉬는 스탠리와 대결에서 옛 남부의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농장이 새로운 물질주의 사회에 의해 상실되었듯이 스탠리가 상징하는 야만 주의적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 스텔라가 불완전하지만 생존을 위하여 스탠리와 함께 있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반면, 블랑쉬는 그러한 동물 주의적 기질과는 타협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블랑쉬가 보여 주는 모든 행동은 벨 리브 시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모든 행동, 즉 숙녀인 체하는 행동, 가장된 언변, 스탠리로부터 회피 등은 상상의 벨 리브로 회귀한다. 그곳은 과거 속에 존재했고 그녀가 묘사하는 벨 리브와 스텔라가 도망쳐 나왔던 대농장은 서서히 죽어가고 몰락해 가는 장소였다¹⁵⁾. 블랑쉬는 미화된 전통세계의 가치관을 갖고 도도한 자세를 취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기보다 패배를 선택할지언정 야만주의 사회에서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녀가 집착하는 남부사회의 귀족주의 전통은 하나의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냉담한 현실사회로부터 도피하

14) Cohn. p. 47~48.

15) Gerald, Weales. *American Dram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p. 24.

러는 그녀의 환상인 것이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점점되는 환상에 몰입한다. 즉 블랑쉬가 빠져드는 비현실의 형태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녀는 현재의 실제 세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꿈같은 환상의 내면세계로 몰려든다. 정도가 심해져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려다 훨씬 더 기괴한 환상 속으로 빠진다. 블랑쉬가 난잡했던 과거를 숨기면서 미치와 결혼하려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꿈이자 이상이다. 그러나 스탠리가 블랑쉬의 과거를 미치에게 폭로함으로써 그 마지막 이상도 깨어져 버린다. 더구나 새로운 미국남부를 대변하는 스탠리에 의해 그녀가 능욕당할 때는 그녀의 옛 남부의 전통은 몰락의 절정에 이른다. 그녀의 문화적, 인간적 미덕은 운명적으로 새로운 미국남부의 상징인 스탠리 앞에서 파괴된다. 그녀의 패배의 당위성을 역사적인 사실과 결부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환상과 현실 양극을 오가며 구분조차 할 수 없이 미쳐버린 후에도 여전히 옛 남부의 이상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동물원』에서 보여주는 남부의 블루마운틴은 새로운 사회의 공포와 위협으로 아만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과거 남부 귀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사치의 물질적 사고와의 갈등과 충돌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비극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는 뉴 올리언즈의 산업화된 세계에 살면서도 벨 리브라는 남부의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블랑쉬가 보여 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남부 문화에 대한 집착이며, 이러한 남부 문화는 블랑쉬의 아름다운 꿈이 서린 세계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위선적이고 타락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스의 작품에서 이렇게 남부라는 배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과거 편집증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심리적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을 각자 나름대로의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근원적 모습이다. 작가 윌리엄스의 이러한 환상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사회적 배경으로서 과거 속의 남부사회 특징들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Ⅲ. 현실과 환상의 내면적갈등 : 『유리동물원』

로라는 섬세하고 거의 유리처럼 투명하여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지극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처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깨지기 쉽고 비극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로라의 이미지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블루로즈’(blue roses)이다. 2장이 시작되면서 깜깜한 무대에 설치한 스크린에 불이 비치면 ‘블루로즈’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학창시절 그녀의 우상이었던 짐이 붙여준 별명으로 그녀가 앓았던 병명 폐렴(pleurisy)를 잘못 알아들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파란색과 장미의 결합은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로라의 예민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표현해 주며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한 이방인인 듯한 여운을 남긴다. 톰슨(Thompson)은 ‘블루로즈’가 그녀의 비정상적이고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특성과 심리세계에 관한 은유이며 외부세계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녀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 한다¹⁶⁾.

로라는 걸모습부터 정상인이 아니다. 그녀는 약간 짧은 한쪽 다리에 의족을 끼고 있는데, 병약함과 함께 나약한 의지를 나타내는 목발은 육체적 결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육체적 결함 뿐 아니라 정신적 결함도 일으키게 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목발 소리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게 여기는데 반하여 로라 자신에게는 걸을 적마다 천둥 같은 고통으로 울려온다.

로라: 다리에 받침목을 댄기 때문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나니까 말이에요!

짐: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요.

로라: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천둥소리 같이 들렸지요.

16) Judith J, Thomson. *Tennessee Williams Plays: Modern, Myth and Symbol* (New York: Peter Lang), p. 69.

짐: 당신은 자의식이 덜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로라: 저는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쿵쿵 소리를 내며
통로를 걸어 올라가야만 했어요.(294)

그녀는 다리를 저는 데서 비롯된 수치심으로 인하여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이 되었고 외부 세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없는 유약한 정서 상태 또한 이 신체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정상적인 정서적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대인 접촉에 대한 공포심으로 타인과의 친교를 이루지도 못하고 거의 혼자서 생활하는 지극히 퇴행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로라는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외부와 고립되어 있다. 그녀는 늘 안으로만 침잠 한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힘겹게 나가지만 층계에 걸려 미끄러진다. 입구와 출구 역할을 하는 이 '화재비상계단'(fire escape)은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이러한 계단에 넘어지는 행위는 그녀가 바깥세상을 두려워함을 의미한다.¹⁷⁾ 또한 이 계단은 바깥 세계로부터 도피해서 숨기 위한 수단이거나 자신의 흉허물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듯한 현실을 가로 막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로라의 삶은 변화 없이 자기세계에 빠져있으며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적인 힘에 지배당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가족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접촉도 없으며 외부와 단절한 채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하게 된다. 아버지의 유물인 측음기와 유리동물원으로 퇴행하든가 가끔 앨범을 뒤적여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상기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신체적인 열등감에서 비롯된 정신적 불안으로 민감하고 연약한 성격적 특성을 갖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게 되는 부적응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사회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한 그녀는 자폐적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자기 혼자의 환상의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로라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자아가 스스로 성장하고 세상에 맞서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터득하는 길이다. 그러나 로라 스스로 자신의 벽을 깨고 나오기에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힘에 겨운 일이며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신체적인 불구라는 핸디캡과 함께 지나친 감수성

17) James L, Robert. *The Glass Menagerie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Lincoln: Cliff's Notes), p.11.

과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한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실패한 후, 어머니의 강요로 루비컴 직업학교(Rubicam's Business College)에 입학한다. 그러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손이 떨려서 자판을 제대로 치지 못하거나, 최초의 타자속도 시험에서는 졸도까지 한다. 그 후 어머니도 모르게 학교를 그만 둔 그녀는 박물관을 돌아다니거나, 온실에서 기르는 열대 꽃을 구경하러 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이 열대 꽃들은 로라가 현실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온실을 떠나서는 자생할 수 없는 것으로 내부세계로만 향하는 그녀의 이미지와 상통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타인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혼자 밀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소통이 불가능한 세계에 그녀는 갇혀 있는 것이다. 로라는 직업학교를 자퇴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자 현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린다. 이러한 사실을 6주간이나 숨기고 거리를 헤맸던 것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얼굴을 대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실망하실 때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무섭도록 괴로운 표정을 나는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미술관의 성모상 그림같이 말이예요.”(24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로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 있게 펼 수 없는 나약한 성격임을 드러낸다.

딸의 사회 부적응을 실감한 어머니 아만다는 곧바로 생각의 방향을 돌린다. 직업이 없는 미혼여성의 비참한 삶을 설명하면서 로라를 결혼시킬 착실한 청년을 찾을 궁리를 한다. 그리고 딸 로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조언을 해준다.

바보 같은 소리! 로라야, 그런 말은 쓰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글썄, 네가 왜 절름발이니? 약간 흠이 있을 뿐이지- 더구나 좀처럼 눈에 띄지도 않아. 사람은 그와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걸 보충하여 완전히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개발하는 법이 다- 매력을 개발하고-....(247)

이러한 어머니의 조언은 자신이 절름발이 불구이기 때문에 훌륭한 남자와의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신체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로라에게는 무의미한 말일 뿐이다. 다리를 저는 것은 현실 부적응의 중요한 요인일 정도로 로라에게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아만다는 ‘작은 결점’(a little defect)에 불과 하다며 ‘다리를 전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더욱이 다리를 저는 것은 로라의 장점이라고 억지주장을 편다. 딸이 처한 육체적, 심리적 상황을 이해 못하고 현실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아만다의 강압적인 태도는 로라를 더욱 더 위축시킨다. 이렇게 단호한 어머니의 태도 앞에서 로라는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 속으로 빠지게 되고 그녀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게만 느껴진다. 로라의 열등감은 주변의 인물들에 의하여 조금씩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이해를 얻지 못하고 로라의 자아의식은 자꾸 내부로만 향한다.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 그녀는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유리 동물들을 하나 하나씩 물로 씻어 닦아 주고 바라보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고 있다. 로라가 몰두하는 ‘유리동물원’(a glass menagerie)은 이글의 제목에서 암시해 주듯이 주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로라의 상징으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는 주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로라의 ‘유리 동물원’은 현실의 벽 뒤에 가려진 자신만의 존재로서 바람만 불어도 그 진열대 위에서 달가닥거리는 연약하고 비현실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라가 불구의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다. 그녀는 마치 유리 동물들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며 보호해 주고자 한다. 투명해서 빛을 받으면 속이 훤히 보이는 유리 동물들은 인간들이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된다. 인간이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유리 동물들은 빛을 투과하여 투명하고 영롱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유리 동물원은 그녀에게는 생활의 전부이며 삶의 본질이다. 바깥의 냉혹한 현실의 세계와 달리 그곳은 그녀의 고독한 삶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이다. 그녀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또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런 자기만의 깊은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삶의 존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세계에는 나름대로의 섬세하고도 부서지기 쉬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유대감과 생명력이 없는 곳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고립된 세계이다. 집으로 찾아온 고교동창이며 마음의 연인인 짐과의 대화중에서 졸업한 후의 생활을 묻

는 질문에 대해서 로라는 유리동물을 수집하는 것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하는 장면에서도 그녀가 사회생활을 철저히 차단한 채, 얼마나 유리 동물들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로라가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 된 것은 그녀의 타고난 기질 탓이기도 하지만 아만다의 과잉보호가 더욱 그녀의 심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라에게도 현실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장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신사손님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말했을 때도 그녀는 현실적이었다. 어머니가 신사손님이 오지 않는 것은 홍수가 나거나 폭풍우가 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자, 로라는 홍수도 폭풍도 그 일과는 무관함을 지적한다. 또 블루마운틴 시절 많은 남자들로부터 구애를 받은 어머니와는 달리 자기는 인기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노처녀가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읽어낸다. 2장에서 어머니가 로라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한다고 말하자 로라는 유리동물을 하나 잡으면서 “나는 불구자”(I'm crippled)(214)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어머니의 환상을 깨려고 한다. 최소한 로라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어머니에 의하여 번 번히 부정된다. 어머니는 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성격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로라의 사회적응력을 점점 더 떨어지게 할 뿐이다. 신사방문객(gentleman caller)을 맞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아만다는 그것을 유쾌한 사기꾼(gay deceivers)이라고 부른다.

로라: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아만다: ‘유쾌한 사기꾼’이라 부르는 거다!

로라: 저는 싫어요.

아만다: 넣고 있어야 돼!

로라: 왜 꼭 이래야 돼요?

아만다: 왜냐하면, 바로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너는 가슴이 작아.

로라: 어머니는 우리들이 마치 텃을 놓고 있는 것같이 만드시는군요.

아만다: 귀여운 아가씨들은 모두 텃이다, 귀여운 텃이지, 남자들은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289)

로라를 현실에 노출시키려는 아만다의 부단한 노력은 ‘아름다운 덫’(a pretty trap)을 통하여 위장시킴으로써 로라에게 왜곡된 현실만을 존재하게 한다. 4장에서 아만다의 옷을 줄여 만든 짧은 소매로 된 코트를 입은 로라의 모습은 그녀의 불균형스런 신체적 조건과 함께 어머니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는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강박관념으로 작용한 로라는 단순히 신체적 결함이란 열등감에 좌절하고, 거대하고 냉엄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거나 뛰어 넘을 생각은 고사하고, 몸이라도 부딪쳐 보려는 의지마저 상실한 채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녀로서는 어머니의 이상과 꿈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자신의 방법대로 딸을 사랑하지만 진실로 딸의 내부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문제로 눈을 돌린 어머니 아만다의 성화에 못 이겨 톰은 직장동료이며 고교 동창인 착실한 짐을 초대한다. 그런데 공교롭게 초대된 신사 방문객은 로라가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짐으로 밝혀진다. 로라의 기억 속에서 그는 훌륭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다방면에서 활동한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유머 감각까지 겸비한 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품까지 갖춘 멋진 남성이다. 먼저 짐은 로라에 대해서 고전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상이라는 자신감을 주며, 로라가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려고 한다. 한때 짐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로라와 달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짐은 로라에게 신체적인 불구에 실망하여 부정적으로 살기보다는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며 그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준다. “인간으로서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예요. 당신은 자신을 믿어야할 만큼 믿지 못하고 있어요.”(279) 즉, 짐은 로라가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녀의 열등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또한 로라의 훌륭한 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온 세상은 보통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요! 모두가 태어났다가 죽을 뿐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가 당신의 훌륭한 점의 십분의 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훌륭한 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훌륭한 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그래요!(280)

그러자 로라는 아만다와 달리 신체적인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이러한 짐의 조언과 칭찬으로 많은 용기를 얻는다. 짐의 조언은 그토록 로라가 바라던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짐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로라는 그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유리 동물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공감을 구한다.

유리동물들 중에서도 로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각수’(unicorn)이다. 이 ‘일각수’의 외향적 독특함은 신체적 불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로라 자신이다. 그러나 로라의 ‘일각수’는 뿔을 가지고 있다는 외모적인 특이성과 상관없이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로라는 자신이 ‘일각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짐에게 설명한다.

짐: 가련한 꼬마 녀석, 꽤 쓸쓸할 거야

로라: 글썄요, 쓸쓸해도 불평은 하지 않아요. 그 녀석은 선 반위에
서 뿔이 없는 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아주 사이좋게 지
내고 있어요.(301)

바로 로라 자신의 모습이 일각수와 같이 특수하여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고독을 느끼지만, 환상의 세계에서 타인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일각수를 통하여 대리 만족의 위안과 희망을 얻고, 그녀 자신 역시 타인과 어울려 생활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유리 동물원의 세계에 집착하는 로라의 심리는 현실세계에서 도피하고자 유약하고 탈속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신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유리 동물들을 수집하고 그 세계에 더욱 집착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짐의 권유로 두 사람은 춤을 추다가 식탁에 부딪혀 일각수의 뿔이 깨져 버린다. 일각수의 뿔은 비정상적인 로라의 다리에 비유되는 것이다. 뿔이 떨어지거나 유리동물은 곧 바로 로라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비범한 것에서 평범

한 것으로, 기이함에서 일상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¹⁸⁾. 이제 그 빨이 없어진 일각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이제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짐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 로라는 오히려 그를 위로한다. “당신은 유머감이 있어서 좋군요. 뭘지 - 당신은- 아주 유별난 데가 있어요.”(303) 이것은 로라가 자신의 고독한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세계로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처럼 평범해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준다. 로라는 병적인 수줍음과 신체적인 열등감을 이겨내고, 누구의 강요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의지대로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일각수를 통해 강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빨이 부러진 유리동물은 로라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소녀가 될 기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짐이 로라에게 보여준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은 잠시뿐 그는 짧은 키스와 함께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떠난다. 로라에 대한 짐의 시도에는 ‘현대적 구원자’(modern savior) 역할을 하려 했던 짐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즉, 구원자로 로라에게 다가왔던 짐은 일시적으로 그녀를 허구적인 유리동물원의 세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짐을 통해 맞본 현실은 로라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가중시켜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 나오려는 시도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버린다. 로라는 빨이 없어진 일각수를 짐에게 추억의 징표로 건네준다.

그녀는 떨리고 있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이윽고 억지웃음을 웃는다. 부서진 유리장식품을 쥐고 있던 손을 다시 편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 자신의 손 높이만큼 올린다.(311)

결국 짐은 6장에서 이들 집을 방문했다가 7장에서 떠나간다. 짐이 그렇게 쉽게 와서 춤을 추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태도는 로라의 삶의 태도나 현실에 대한 적응력과 너무나 대조를 보여 이질감조차 느끼게 한다. 신사 방문객이 약혼했음이 밝혀지고 그녀가 아끼는 일각수의 빨이 깨졌을 때 로라의 미래도 깨어진 유

18) Robert, p. 26.

리와 같은 것이다¹⁹). 잠시 동안 자기의 세계에서 떠나 타인과의 세계에 합류할 수 있는 꿈을 꾸었으나 그건 자의에 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시 본래의 유리동물 세계로 돌아와 버린다. 현실세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매우 수동적인 로라는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핍된 인물이다. 그녀가 너무나 민감하고 연약해서 현실 세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을 거절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련을 거쳐 로라가 성숙해 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잠시나마 그녀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신사방문객은 현실세계가 얼마나 가혹한 세상인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고 돌아간다. 짐은 아만다의 환상속에서 잠시 떠밀려 나온 인물이며, 로라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 톰의 손에 이끌려 그녀 앞에 나타난 ‘미국의 꿈의 대변자’일 뿐이다²⁰). 그녀가 꿈꾸는 이상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실에 적응하려면 로라 스스로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롭게 자신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신체적 불구와 열등의식을 지닌 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닫힌 세계를 깨고 나오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타인과 삶을 교류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은 결코 영위할 수 없다. 그녀는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가엾은 희생자이며 현대 산업문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을 아울러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의 분위기를 즐기며, 낡은 축음기를 듣고, 유리동물을 만지며 자기만의 세계에서 맴도는 유약한 그녀에게 작가 윌리엄스는 결코 미움이나 멸시가 아닌 동정과 연민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로라는 실제 작가 윌리엄스의 누이 로즈(Rose)가 평생을 정신요양소에서 간혀 지냈던 것처럼, 로라 역시 자신의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도피하고자 했던 성격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자아의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만다. 결국 직업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사 방문객’과의 교제와 결혼에도 실패함으로써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구원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소외를 상징하는 유리 동물원

19) Francis, Donahue. *The Dramatic World of Tennessee William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p. 218.

20) Stein, Roger B, "*The Glass Menagerie Revisited. Catastrophe Without Violence,*" *Tennessee Williams*, ed. Stephen S. Stanton(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 36.

으로 회귀한다. 그녀 자신의 노력만이 그녀가 소외된 고립의 세계에서 떨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러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유약하다. 이제 그녀가 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현실도피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실로 우리가 이해하는 삶의 모습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딸에게 평소와는 달리 질책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동정을 보내는 어머니 아만다의 모습을 통하여 작가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동반한 인간관계만이 로라의 내면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신사 방문객인 짐은 윙필드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작가는 그를 윙필드 가족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으로 기대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만다가 늘 블루 마운틴에 있던 신사 방문객을 연상하듯이 짐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짐의 지위는 발송계원이며 보수도 톰보다 20달러나 더 받고 맘에는 라디오 기술과 연설도 배우는 유망한 청년이다. 로라도 호감을 가진다. 짐은 고등학교 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스타로서, 비록 로라 자신은 연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불구자이지만 짐에 대한 기대로 흥분에 가득 찬다. 톰의 말대로 그는 바로 윙필드 가에게는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항상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짐은 이 극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서 윙필드 가와는 별도의 세계를 갖고 있다. 비록 창고(warehouse)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믿음과 자신에 차있다. 그는 로라에게 자신에 찬 미래를 들려준다.

나는 미래에는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도 그것을 따라 발전할 준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미 사업상 접촉을 제대로 해 놓았지요. 앞으로 할 일은 부지런함만 남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거든요! -결국 권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순환 사이클이지요!(299-300)

그러나 짐은 윙필드 가족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그도 또한 톰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으며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저에게 두 가지 할일이 있습니다. 윙필드 부인, 하나는 아침에, 다른 하나는 밤에 지요!”(309) 짐은 고등학교 때 훌륭한 아일랜드 사람의 기질과 기백을 가지고 농구선수로서, 또 토론부 주장으로서, 거기에 합창단의 단장이었으며 교내 오페라의 주연을 맡은 유망주였다. 이러한 짐에 대한 아만다의 기대는 로라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으나 애쓴 보람도 없이 그 기대는 짐에게 베티(Betty)라는 약혼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것은 또한 로라에게 현실세계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리게 된다. 로라는 뿔이 부러진 유니콘을 짐의 손에 쥐어주고 낡은 축음기를 틀면서 자기의 환상의 세계로 되돌아가 버린다.

한편 로라와 달리 톰의 갈등은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는 늘 현재의 자기 일에서 탈출하여 아버지처럼 먼 곳으로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식구들을 두고 항상 고민한다.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톰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 댄스 홀’(Paradise Dance Hall)은 그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이다. 댄스홀에서 흘러나오는 느리고 육감적인 탱고나 왈츠 같은 곡을 들으면서 그는 변화와 모험이 없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한 가닥 위안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변화와 모험이 없는 생활을 하는 톰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 댄스홀은 외부세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윙필드 가족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세계이다²¹⁾.

극의 시작부터 톰은 서술자로서 댄스홀이 지니는 의미를 “이것은 나처럼 그 어떤 변화와 모험이 없이 보내는 삶을 위한 보상이었습니다.”(265)라고 설명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댄스홀은 그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그것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댄스홀은 춤추는 남녀에게 매일 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모든 것이 그들과 그리고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환상 속에 빠지는 기회를 준다. 밤 동안에 서로가 정신없이 춤을 추면서 만끽하는

21) Benjamin, Nelson.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New York: Monrch Press), p. 22.

즐거움이 영원히 가지 못하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그것은 지나간 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로라의 환상세계인 ‘유리동물원’과 같다. 또한 아만다에게 남부의 화려 했던 과거 세계인 블루 마운틴과 맥락을 같이하는 환상의 세계이다. 이것은 바로 톰이 자주 애용하는 영화관과 같다. 왜냐하면 모험과 변화를 찾아 밤늦게 영화관에 자주 드나드는 톰의 환상과 같은 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창고 일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선원의 꿈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톰에게 영화관과 댄스홀은 바로 무한한 모험의 세계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톰 :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극장엘 갑니다. 모험이란 제가 직장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에 갑니다.

아만다 : 하지만, 톰, 너는 극장에서 전적으로 살다시피 하지 않니!

톰 : 나는 그만큼 아주 모험을 좋아해요.(259-260)



또한 영화관에 자주가는 것에 대해 어머니와의 논쟁에서 톰은 항변한다.

...어머니는 늘“자기”를 말하십니다. 그“자기”야 말로 내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라면, 어머니, 나는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을 겁니다. 가 버리고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무슨 교통수단이든 가는 게 있으면 아무 것이나 타고 말이 예요! [그가 잡자기 그녀를 지나가려 한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는다.] 저를 잡지 마세요, 어머니!(252)

그의 가족을 버리고 도피한 아버지 왕필드처럼 그도 어머니와 누이를 놓아두고 떠나버리고 싶어 한다. 아버지는 이 극에서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고 사진으로 벽에 걸려있는데 싱긋 웃는 그의 모습은 톰에게 항상 도피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톰은 그의 아버지처럼 완전한 도피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서술자로서 톰의 마지막 대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때 갑자기 누나가 나의 어깨에 손을 댍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오, 로라! 로라! 나는 누나를 버려두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의도한 것보다는 더 충실합니다.(313)

틈은 결국 구두상자에 시를 썼다고 하여 구두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을 떠나, 한때는 산뜻한 빛을 내다가 가지에서 떨어져버리는 잎사귀들처럼 이 도시저 도시를 돌아다니지만 로라와 아만다의 환상이 그림자처럼 따라 항상 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도피하지는 못한다.

어머니 아만다 역시 갈등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아만다는 미국 남부의 옛 생활과, 남편의 추억을 간직하고서 딸에게 신사손님이 방문해 주길 고대하거나, 가족의 안전한 삶, 또는 뭔가 높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꾼다. 이러한 꿈은 대부분 반대자의 강한 반발에 의해 파괴된다. 아만다의 꿈의 대상은 남부인들의 삶과 떠나버린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 또 자식에 대한 바램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다. 그녀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산다. 단조롭고 권태감을 주는 현재의 세계와 추억의 즐거움을 주는 과거의 세계이다. 특히 그녀의 뇌리에는 옛 남부의 삶이 깊게 박혀있고 그 공간에서 그녀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손님에 대한 접대이다. 그녀는 처녀들에게 아름다운 외모보다 융통성 있는 재치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말솜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야비하고 거칠고 평범하고 천박한 대화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만다와 같이 부모는 자식들 앞에 보여주거나 남겨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 더 과거 속으로 함몰되어 간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이란 바로 잃어버림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 타고난 제약과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²²⁾. 그녀는 불거리를 꾸며내기 위해 낡은 가방에서 유행이 지난 옛 의상들을 끄집어낸다. 아이들의 관심을 환기시키지만 그녀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통의 순간일 뿐이다.

장면 6에서 무도회에서 무도회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푸른 비단 장식 띠가

22) Judith J, Thomson. *Tennessee Williams Plays: Modern, Myth and Symbol*. (New York: Peter Lang), p. 276.

달린 노란 천의 소녀다운 드레스”(275)를 다시 걸치고 팔에는 노란 색의 수선화 꽃다발을 걸고 뿔내며 건거나 무도회장을 빙글빙글 돌 듯 방안을 돌아본다. 그녀는 신사손님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날 때도 그 옷을 입었다면서 오랫동안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파티장에서 춤을 추거나 말을 타고 멀리까지 소풍을 나가거나, 노란 빛의 수선화 꽃의 물결 속을 헤매는 추억들을 이야기 한다.

유행하는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겠지? 이건 무도회에서 코티용을 리드 했을 때 입었던 드레스야! 로라! 내가 무도회장에서 미끄러지듯 춤추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나?(중략) 수선화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 해 봄이었지.(중략) 그러다가 난 네 아버지를 만난거야! 말라리아열과 수선화와(남편 사진을 보며) 그리고 그때 -이- 청년.... (276)

이 장면은 같은 장 끝 부분에서 짐이 왔을 때 또다시 재현된다. 이러한 행위로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찾거나 자신이 마치 옛날로 되돌아가 신사손님의 방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때의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도 놀라고 손님으로 온 짐조차 얼떨떨해 한다. 그녀는 딸이 귀엽기도 하지만 가정적인 아이라고 사랑부터 한다. 그리고는 자기의 옛 고향에서의 삶과 신사손님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만다의 이러한 모습에서처럼 남부의 역사는 남부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살아 있고 그 전통은 남부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남부는 단순히 그들의 옛 고향만은 아니다. 남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완전히 눈감고 과거로 달려가, 꿈속에 잠겨버림은 바로 오늘을 사는 그들의 불행인지도 모른다. 지난날에는 남부 귀족들의 고귀함과 우아한 생활, 부유한 신사들의 방문, 가족 사이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도전과 고난, 실망감만 팽배해 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음은 지난 세월에 비해 현실이 너무나 물질적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 그들의 경우, 아름다움과 온화함이 있는 과거로의 여행은 거칠고 삭막한 현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다.

남부가 낭만적인 꿈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남편 역시 남부의 문제와 같은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등장인물들에게 그가 꼭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며 딸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 경우, 딸아이가 방안에 쳐 박혀 남편이 남기고 간 닳아빠진 축음기판만 들고 있을 때, 그건 순전히 남편의 빈자리에서 오는 고통의 잔재일 것이다. 그녀는 3장에서 이들과 말다툼을 벌일 때에 낡은 목욕가운을 입고 나오는데 그것은 남편이 남긴 옷이다.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은 과거의 문화전통과 현재가 어울림 없이 엇갈려 있고, 더 불편함만 준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떠나가기 전에도 늘 나가 살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야말로 아내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과 고통만 남겨두고 말없이 떠났었다. 그러함에도 5장에서 그녀는 외모에 신경을 쓰거나 단정한 태도를 지닌 남편을 이들이 본받았으면 한다. 비록 가정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부의 전통적인 삶이 그러하듯 그가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아만다의 당면 문제는 자식들에 관한 문제이다. 그녀는 5장에서 자기가 달에게 빌었던 것이 바로 나의 소중한 아이를 위한 성공과 행복임을 밝힌다. 달이 뜰 때 늘 그녀는 그렇게 빌어 왔었고 달이 없는 날도 마찬가지였다고 아들에게 말한다. 로라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장에서는 많은 수업료를 내고 딸을 실업대학에 보내어 타자를 배우게 했지만, 그녀는 적응하지 못하고 미술관이나 동물원 등으로 돌아다녔음이 밝혀진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일찍 깨우며,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듬뿍 표현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아들은 술꾼이고 딸은 자기 방에 박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슴 뿌듯함을 그녀는 늘 간직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자기 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나중에 딸아이의 불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딸의 조용한 성격을 흐르는 깊은 물에 비유하면서 그 조용함이 좋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딸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처음에는 아들과 딸을, 얼마 뒤에는 딸만이라도 자기 갈 길을 찾게 된다면 집안의 기둥으로 삼고 있었던 아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고 다짐한다.

늘 바쁘다는 아들을 부여잡고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도록 간청한 뒤, 어머니

는 딸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한다. 딸이 아들보다 두 살이나 많지만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혼자 집에서 살고 있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보호해줄 남자와 결혼하고 따로 가정만 가지게 되면 아들이 어디로 가도 좋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그것이 기대 과잉일 때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큰 짐으로 남을 수 있다. 아만다는 자식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으로 로라와 톰이 전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아만다의 갈망은 그녀의 많은 환상 뒤에 자리하는 쇠퇴한 경제적 환경과 물질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만다의 환상은 성공을 향한 미국인들의 꿈의 전통적 특성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꿈을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상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 때, 자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유리 동물원』은 고독한 로라의 환상의 세계를, 블루 마운틴은 아만다의 화려했던 과거 세계를, 신사 방문객은 이들 가족의 순간적이거나 희망의 상징으로, 길 건너에 위치한 댄스홀이나 아버비 윙필드의 사진은 현실세계로부터 위안과 도피처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상징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한때는 블루 마운틴에서 화려했던 과거를 동경하고 신사 방문객처럼 미래를 꿈꾸지만, 파라다이스 댄스홀의 환상처럼 쉽게 없어지거나 유리동물과 같이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인간상을 윌리엄스는 시적인 상징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IV 현실도피의 비극적 갈등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윌리엄스의 등장인물들의 유형은 현실에 살면서 환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현실과 환상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의 작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주제를 가장 명확한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용해시키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쉬가 가진 환상은 과거 남부사회의 한 상징으로 현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벨 리브’(Bell Reve)의 세계이다. 고향의 땅의 ‘벨 리브’는 이미 몰락했으나 아름다운 꿈이라는 그 의미처럼 꿈에 대한 상징이며 환상의 상징으로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뉴 올리언즈에 오면서 블랑쉬는 그녀의 아름다운 꿈을 상징하는 ‘벨 리브’와 대조되는 추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녀가 자라온 농장과 그녀가 현실에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온 지역의 이름이 더욱 상징적으로 대조를 일으킨다. 콘(Cohn)은 이 벨 리브라는 이름을 분석하면서 “바로 벨 리브라는 이름은 리브가 남성명사이고 벨이 여성 형용사이므로 꿈을 여성화 한다.”²³⁾라고 했듯이, 이 문법적인 모순은 블랑쉬의 허구적이고 이중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실제로 벨 리브는 블랑쉬의 조상들이 재산을 탕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곳이며 그녀 자신도 방탕한 기질을 이어 받은 곳이기도 하다.

과거 벨 리브에 고착된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블랑쉬를 고귀하고 우아한 벨 리브에서 어렸을 적의 천사처럼 처신하도록 만든 초자아적인 도덕성, 현실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본능적인 난잡한 성관계에 빠진 육체적, 동물적 욕망의 갈등 사이에서 바로 그녀의 이중적 성격은 생성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양면성 사이에

23) Gerald, Weales. p. 45.

서 고뇌하는 그녀의 갈등은 바로 현대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그녀의 이름 블랑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양면세계는 극 전체를 통해 언어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징에 잠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랑쉬(White) 드보아(Woods)는 흰 나무(White Woods)를 상징하며 이는 블랑쉬의 순결(White)과 직결된 나무(woods)로서 프로이트(Freud)의 남근숭배(Phallicism)를 상징하고 있다. 드보아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드(the), 보아(boys)로서, 남자들의 블랑쉬(Blanche of the Boys)라는 조어(pun)가 만들어지며 이는 또한 그녀의 성적으로 난잡함을 상징하는 또 다른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블랑쉬의 이중성은 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콘이 지적했듯이 승리의 개념인 ‘로렐’(Laurel)이라는 지명을 들 수 있다²⁴). 원래 로렐은 월계수로 승리를 상징한 것인데, 블랑쉬가 로렐에서 17세의 제자와 부도덕한 성관계가 문제시되어 추방당했으므로 그녀는 사실상 로렐에서 패배했다고 봐야 하는데도 승리를 상징하는 로렐에서 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계속 살펴보면 블랑쉬의 여동생 스텔라(Stella)는 별을 의미한다. 별은 꿈과 희망의 대상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지만 스텔라는, 스탠리(Stanley)의 세계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역시 작품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랑쉬의 환상의 세계를 끝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20세기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인 스탠리 코왈스키(Stanley Kowalsky)라는 이름은 블랑쉬의 다음 대사처럼 석기시대의 생존자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동물적·육욕적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 같은 습성을 가졌어! 짐승처럼 먹고, 움직이고 말하지! 사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뭐랄까-인간 이하인 무엇까지도 있어. 그렇지, 인류학을 할 때 그림에서 보았던 원숭이 같은 부분도 있단 말 야. 수천 년의 세월이 그에겐 아무런 영향도

24) Cohn. p. 47.

미치지 않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석기 시대의 생존자-스탠리 코
왈스키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정글에서 사냥감을 잡아 날 고기
를 들고 집으로 오고!(163)²⁵⁾

그리고 스탠리의 집 2층에 살고 있는 유니스(Eunice : good victory)와 스탠리의 친구인 스티브(Steve : crown)는 자신들의 이름이 암시하는 의미가 스탠리의 동물세계를 보강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블랑쉬가 만들어 낸 가공인물이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진짜인 것으로 착각되기 쉬운 셉 헌틀리(Shep Huntleigh)에 있어서, 셉은 전원의 멧쟁이(pastoral swain)이며 헌틀리는 귀족의 의미(aristocratic sport)를 담고 있어 그녀가 그리워하는 벨 리브와도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셉 헌틀리는 그녀에게 절망적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그녀의 영원한 구원자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언어적인 상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목욕과 전구의 불빛도 환상과 현실을 가늠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사용한다. 블랑쉬는 남편을 자살하게 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남자들과의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고, 이러한 행위는 그녀를 현실에서 점점 더 파멸시켜 간다. 동생 스텔라 집에 온 이후로 지나칠 만큼 자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목욕이 죄의식과 타락한 생활로부터 이전의 순결한 상태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정화욕구를 상징하고 있다. 블랑쉬의 꾸밈없는 내적 상태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작은 목욕 행위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목욕에 대한 집착은 재생하고자 하는 그녀의 애처로운 시도인 것이다²⁶⁾. 블랑쉬의 음주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목욕은 하나의 탈출 수단이다. 욕조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잦은 샤워행위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킴으로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세계에서 젊고, 순결한 상태로 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전구의 불빛을 갖(cover)으로 씌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있다. 맨 먼저 동생 스텔라의 집에서 오면서부터 제안했던 첫 번째 요구는 머리 위의 전등불을 꺼달라는 것이었다. 자

25) Robert, Jone. "Tennessee Williams' Early Heroines", pp. 211~219.

26) Foster Hirsch, *A Portrait of Artist: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Port Washington, N.Y. : Kennikat Press), pp. 32-33.

신의 현실을 그대로 들어내지 않고 환상의 세계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스텔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젠 너 좀 보자꾸나. 하지만 날 보지는 말아, 스텔라, 안돼, 안돼, 안돼, 이때까지는. 목욕하고 좀 쉬고 난 다음까지는 안돼. 그리고 천정의 불을 끄렴! 저 불을 꺼! 이 무자비한 불빛 아래서는 보여 주지 않을 거야. (120)

블랑쉬가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를 숨기려는 전형적인 여성의 허영심이라 볼 수 있지만, 전구의 불빛은 블랑쉬에게 있어서 더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덮개 없이 드러난 전구는 사실적인 현실세계의 상징으로서, 밝은 전구의 불빛을 가라는 그녀의 모습은 현실과 비타협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고 있다. 무의식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치(Mitch)에게 “무례한 말짓거리나 저속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갖 없는 별거벗은 전등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292) 라고 말하고 있는 블랑쉬의 말 속에는 전구 불빛이 단순히 현재의 자신의 노화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스텔라는 가능한 많은 불빛을 좋아하며 블랑쉬와 달리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노출된 불빛을 좋아한다. 삶의 진리에 대해 블랑쉬와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스텔라는 미치를 사주하여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블랑쉬의 얼굴을 잘 볼 수 있게끔 종이 전구 덮개를 찢게 하는데, 이때 블랑쉬는 자신의 현실이 폭로되는 것 처럼 절규하는 비명을 지른다.

미치 : 종이를 찢어 놓은 이것 말이에요. [그가 전구에 찢어져 있는

종이 덮개를 찢어낸다. 그녀가 놀라 숨을 헐떡 거린다.]

블랑쉬 : 뭣 때문에 그러셨죠?

미치 : 그래야 당신 얼굴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블랑쉬 : 물론 내게 모욕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

미치 : 아니요,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블랑쉬 : 난 사실주의는 싫어요. 전 마술을 원해요! [미치가 웃는

다.] 네, 그래요, 마술! 난 사람들에게 마술을 걸려고 해요.
나는 그들에게 사물을 그릇되게 전하죠. 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이어야 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죄 받
을 짓이라면, 벼락이라도 달게 받겠어요! -불을 켜지 말
아요!(203-4)

극의 마지막 장에서 블랑쉬가 끌려갈 때 스탠리는 다시 한번 이 종이 덮개를
찢어서 블랑쉬에게 건네준다. 이때 블랑쉬는 마치 그 덮개가 자신인양 다시 비명
을 지른다. 블랑쉬는 친구 덮개만큼이나 섬세하며 애처로운 현실에서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으며, 강한 불빛으로 상징되고 있는 스탠리의 현실 세
계의 비전을 감당하지 못한다.

블랑쉬의 현실도피의 비극적 갈등은 또한 음악과 음향효과와 상징을 통해서
도 나타난다. 음악은 이 극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원시적 힘의 느낌을 전달한
다. 등장인물들의 행위의 배경으로 나오는 ‘블루 피아노(blue piano)’는 흑인들의
배척되고, 소외된 감정과 고독감, 거부감,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연대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다. 블랑쉬 역시 버림받고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찾고 있
다. 그래서 블루스 음악은 블랑쉬의 광적인 이중성,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등의
이면에 있는 한 여자로서의 가련한 비정상적인 인간적 측면으로서 영혼과 교감
한다.

블랑쉬와 스탠리의 갈등과 대립을 위해 트럼펫과 정글의 소리, 기관차 소리
그리고 포 듀세스(four Deuces) 술집-아래층에서는 술을 팔고, 위층에서는 매춘
을 하는 타락한 퇴폐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감각적인 음악 등을 대조적으로 표
현한다. 제 4장에서 스탠리가 등장할 때 이러한 음향 효과를 찾을 수 있는데 즉,
기관차 소리가 스탠리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다. “기차의 소리가 들릴 때 스탠리
가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온다.”(169) 이러한 블랑쉬와 스탠리, 환상과 현실의 세
계를 상징하는 음악의 조화는 제 10장의 ‘폭행 장면’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녀
에게 들려오던 폴카 음악과 블루 피아노 음악은 스탠리로 표현되는 정글 소리와
기관차 소리에 파묻히게 되고, 급기야 탁한 트럼펫 소리로 끝나게 된다. “들릴락
말락 하던 “블루 피아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이 음악소리는 다가오는 기

관차 소리로 변한다.“(214) 그녀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블루 피아노” 소리가 기관차 소리와 트럼펫의 탁하고 강렬한 소리에 묻혀짐으로서, 스탠리에 의한 블랑쉬의 패배와 파멸을 보여 준다. 그녀의 심경 변화와 상황 전개에 따라 효과적으로 들려지는 음악은 블랑쉬의 보다 구체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블랑쉬는 떠나기 전 성당의 종소리를 듣는다.

[성당의 종소리가 울린다.] 저 성당의 종소리-이 퀴터 지역에서
저 소리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거야. 그러면, 이제 떠나야겠어. 갈
준비가 됐어.(223)

지금의 현실에서 블랑쉬가 듣게 되는 맑고 깨끗한 성당의 종소리는 블랑쉬가 부여잡고 있는 성스럽고 순결한 환상의 세계에 일치하는 유일한 것이며 평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블랑쉬의 현실도피의 양상은 여러 이미지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빛과 어둠, 물과 불의 이미지리이다. 이러한 심상들은 부패된 현실을 인지하며 또한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상징하기 위해서 윌리엄스의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둠은 바로 블랑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현실에서 그녀가 선택해야할 진로를 가로 막고 있다. 빛의 상징은 앞서 설명한 전구 불빛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녀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러한 것이다.

윌리엄스는 물을 정화의 이미지로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데 사용한다. 물에 대한 상징은 윌리엄스의 기본적인 상징으로서 이 작품에서 그녀의 목욕을 통한 정화욕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바다는 윌리엄스가 흔히 즐겨 쓰는 물의 상징으로서 순수함과 타락되지 않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한다. 바다는 순결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타락 이전의 삶의 시작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서 윌리엄스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상징이다²⁷⁾. 블랑쉬는 자신의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27) Donald P. Costello. "Tennessee Williams Fugitive Kind," *Tennessee William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tephen S. Stanton(Englewood Cliffs, N.J.:

냉정한 현실에 의해 파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더 넓은 정화와 생명의 원천인 물을 간구한다. 비록 블랑쉬가 파멸해 가지만 진정으로 그녀가 원하는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아름다운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윌리엄스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남은 여생을 바다에서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는 바다에서 죽을 테야.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아? [그녀가포도 한 알을 따다.] 나는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어느 날, 씻지 않은 포도를 먹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깨끗한 하얀 부대에 싸여서-정오에-여름 햇살이 내리 쬐릴 때, 나의 처음 연인의 눈동자처럼 [종소리가 다시 울린다.] 푸르고 넓은 바다 안에서, 그 바다에 묻힐 거야.(220)

블랑쉬는 넓은 바다에서 씻지 않은 포도를 먹고 첫 연인의 눈동자 같은 푸른 바다에서 죽고자 한다. 이것은 블랑쉬의 자아도취적인 어머니 자궁의 상태인 깨끗하고 순결한 시절로 회귀하고픈 그녀의 간절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주관적인 물의 이미지와 함께 블랑쉬의 운명을 알려주는 현실세계의 물의 이미지는 제 1장의 무대 지시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엘 앤철도 회사의 철길과 강 사이를 지나는 이상향이라는 이름의 블랑쉬가 “지상낙원”으로 오기 위해 건너게 되는 미시시피(Mississippi) 강의 이미지는 신화에서 말하는 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블랑쉬는 욕망에서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이 경계선을 넘은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작가는 다양한 상징을 통해 현실에서 좌절하고 패배한 블랑쉬를 주인공으로 그녀가 대표하는 환상의 세계와 스텐리가 대표하는 현실세계의 갈등을 남부의 모든 배경을 빌려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환상과 현실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미국 남부라는 작품의 환경적 특징을 작품의 주제적 요소에 근접시키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언어와 행위, 조명, 음악, 심상 등에 다양한 상징을 부여하면서 두 상반된 세계의 갈등의

Prentice-Hall, 1977), p. 110.

28) Bock. p. 9.

양상을 대조해 가고 있다. 이외같이 블랑쉬의 비극적 갈등의 양상은 상징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다음은 블랑쉬의 인물과의 갈등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블랑쉬를 중심으로 하여 그녀의 현실도피와 자유의지를 면밀히 보고, 그녀가 자유의지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협조자와 반대자,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록 고향을 떠나왔으나 그녀의 뇌리에는 남부가 온전히 살아 있다. 그녀는 미국 남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를 꿈꾼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지닌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그녀는 옛 남부의 환상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협조자를 겨우 만나기는 하지만 반대자의 힘이 더 강하며 꿈을 이루는데 협조자나 그것을 받아주는 수신자는 필수적이지만, 그녀의 경우는 버팀목도 없고 그 무엇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남부라는 질서의 양상을 먼저 살펴보면, 블랑쉬가 뉴 올리언즈 동생 집을 방문했을 때 이층에 살고 있는 유니스는 남부의 고향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녀는 스텔라가 사진을 보여주었다면서 환 기등과 커다란 저택의 블랑쉬의 고향을 언급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그녀는 말 하지만 블랑쉬는 여행의 피로로 고향 이야기를 입에 담을 힘조차 없다. 그럼에도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곧이어 여동생 스텔라를 만나자마자 그 동안의 화풀이를 그녀에게 다 하듯이 마구 지난 일들을 쏟아낸다. 동생은 아버지가 죽자 곧바로 고향을 떠났었다. 남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여동생이 도시로 와서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동안 블랑쉬는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저 블랑쉬는 걱정스런 표정부터 짓는다. 동생은 고향을 떠나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고향 농장을 지켜보려 안간힘을 썼다. 혼자 남아서 고향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잃게 되는 처참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새로운 물결이 물밑 듯이 들어오면 조금 전까지 탄탄히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밀려난다. 것처럼 그곳에 살아

온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장례 의식이 조용하고, 엄숙한 것과는 달리, 죽음과 맞닥뜨린 이들이 마지막 보여주는 발버둥과 고향치는 소리 등은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다.(262)

블랑쉬는 그 때의 모습을 마치 죽음의 신이 문 앞에 멈추어 선 듯했다고 표현한다. 그녀가 가족들의 죽음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장례비로 탕진 했지만 동생은 결혼해서 폴란드 친구와 어울렸다고 말하자 동생 스텔라가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 언니가 고향을 잃었다는 사실은 다음 장에서 스텔라가 남편에게 말할 때 다시 언급 된다. 남부의 전통은 지난 세월과 남부라는 공간에서만 바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블랑쉬가 남부를 뇌리 속에 기억하길 간절히 원하거나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그 전통과 가까이 한다. 남부라는 고향을 가졌다가 또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 고향이 한 인간의 뇌리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거나 그 고향을 스스로 떠난 경우가 아니라 빼앗겼을 때, 그래서 그 고통이 한 인간을 끝까지 움아낼 때, 그 괴로움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고향을 떠난 블랑쉬는 불안한 모습으로 마치 나방을 연상하게 하는 흰 색깔의 의상을 입고서 동생의 집에 나타난다. 고향을 떠났음에도 그녀는 잠시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동생에게 그 땅을 기억해 주길 간청한다. 이곳에 오기 전 그 옛 땅을 잃은 아픔으로 그녀는 많은 방황을 하기도 했다. 5장에서 동생에게 지난 2년 동안 얌전치 못했고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한다. 격변기를 맞아 타의로 인해서 자신의 공간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한층 큰 괴로움과 소외를 격어야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전통과 관습을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블랑쉬 처럼 외로움에 발버둥치거나 그 고통의 끝에서 행복했던 예전의 가족관계를 추구하다보면 자신이 지녀왔던 전통마저 자기도 모르게 부수어 버릴 수도 있다. 고향을 떠나 지난 세월을 말끔히 잊고 적응해 가는 여동생과는 달리 더 괴로움을 느끼거나 과거 남부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바로 그녀가 다른 이들보다 보수적이고 소외로 인한 귀속감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부라는 공간에 대한 끈끈한 정과 함께 그녀가 지닌 소외감은 다양하게 드

러난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마음 둘 수 있는 어느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가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넌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야! 그런데 넌 날 반가워하지 않는 구나!”(105)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곳 하나 갈 데가 없어 여동생 집을 찾기는 하지만 쉽게 안정을 찾지는 못한다. 언니와 같이 동생 스텔라도 비록 그녀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가족의식이 강하다. 그녀는 언니 술시중을 드는 일이 좋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곳이 언니와 같이 있으니 더욱 집같이 느껴지는 걸!”(236) 하고 말한다. 이런 모습에서 이들 자매에게는 가족의식이나 연대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의 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랴도 누구라도 부여잡으려 했던 것은 블랑쉬의 소외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그녀가 미치를 만나게 됨은 인간이 지닌 본능의지 때문일 것이다. 3장에서 그녀는 밤의 포커꾼들 가운데 미치라는 이상적인 남자가 이 세상 최후의 구원자처럼 바라본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그를 다른 남자보다 좀 나은 사람같이 느낀 것은 그가 마치 남부신사의 표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블랑쉬는 미치에게 자기는 어떤 환경에도 썩 잘 적응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잠시 뒤에 동생 부부의 싸움이 벌어지고 난 뒤, 미치와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미치에게 그의 친절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 혼란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장된 친절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 줄 남자가 필요했다. 또 다른 이유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그녀가 지닌 소외감과 그로 인한 소속감에서 나온 것이다.

6장에서 블랑쉬와 미치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녀는 재미있는 만남이 되도록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치는 그녀에게 묻는다.

미치 : 왜 마음도 없이 노력했어요?

블랑쉬 :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른 거죠.

미치 : 그게 뭐죠?

블랑쉬 : 숙녀는 신사를 즐겁게 해줘야한다는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271)

그녀의 말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랑과 가정, 가족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 지향적이고 전통 지향적인 생활태도가 굳어지면 스텔라가 말했듯이 허울 같은 가면의 생활과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의 결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온몸에 태산 같은 피로가 덮쳐올 때 그녀가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쉽사리 삶의 진실이 아니라 삶의 표피로 관심이 가기도 한다. 블랑쉬는 스텔라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외모를 그녀에게 확인케 했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목욕을 하고 나올 때마다 그녀의 옷이 멋있다는지 얼굴이 예쁘다고 말해 달라고 간청한다.

블랑쉬의 이러한 태도는 스텔라의 집 근처에서 끊임없이 오고가는 전차처럼 그녀 안의 자유의지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씬 없이 오고 가는 전차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그녀는 줄곧 어딘가에 소속되길 바라고 소외로부터 벗어나 안정감을 추구하려 시도한다. 귀속의지란 과거의 전통을 지켜가거나 서로 엇갈려 있는 것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개성이 강한 가족들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공간에 뿌리내리도록 해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스텔라의 자기 가정을 고수하려는 모습과 동시에 자유스러운 행동양식에서 보듯이 귀속의지가 강하면 강한 사람일 수록 자유의지는 상대적으로 더 폭발한다. 반면에 블랑쉬의 자기공간에의 집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의지를 펼치는 사람일 수록 귀속이지도 탄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빈손과 빈 가슴과 빈 주머니로 홀로 서기란 어렵다. 협조자가 있어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도록 버텨 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반대자들이 밀어 내거나 부수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오랫동안 살아온 땅과 사회가 크게 변화되어 갈 때와 그 변화와 더불어 그 곳에 살고 있는 이들도 같이 변화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블랑쉬가 바로 그 격변기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어려운 시대임에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렬하고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녀가 지닌 소외감과 안정을 바라는 자아실현의 욕망 때문이다. 그녀가 가진 자유의지는 진실을 추구하거나, 공간 의식을 통해 자기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며 성적 욕구를 강하게 분출시키거나 비타협적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블랑쉬는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옛날 대학 다닐 때

가까웠던 남자 셉(Shep)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블랑쉬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들고 읽기도 한다. 스텐리로부터 폭행을 당하기전에도 그의 초대장을 받았다가, 그에게 전보를 친다고 야단법석을 떠난다. 그녀는 몇 번이나 요트를 타고 카리브해로 여행하는 꿈을 꾸며, 절망에 빠져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보 내용에 쓰기도 한다. 이런 그녀의 환상과 초월 의지는 가진 것 없이 빼앗기기만 하는 이들이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이다. 그녀는 이런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락의 늪 앞에서 “당신과 이곳에 있진 않겠어! 어떻게 해서든 난 이곳을 빠져나갈 거야!”(394) 라고 말한다. 그녀는 안에서 밖으로, 고향에서 타향으로, 자기에게서 또 다른 자기에게로 끝없는 도피의 여행을 꿈꾼다. 11장에서 정신병원으로 실려가기 전에 그녀는 스텐리의 집이 바로 올가미임을 주장하며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블랑쉬 : 날 놔주라고! 난 푸른 바다에 가야해

어니스 : 왜 그러세요?

블랑쉬 : 난 여행을 가야만해 어서 내 짐들을 챙겨 줘! 그리고 좀

도와줘 옷을 입게

어니스 : 여행을 가요?

스텔라 : 언니는 휴양이 필요해요.(옷을 건네며)이건가?

블랑쉬 : 그래! 됐어! 빨리 이집을 나가야지! 이 집은 덧이야!(401)

그녀 자신을 정화하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 그 몸부림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블랑쉬는 이미 자기의 생일날 미리 오기로 약속된 미치 조차 스텐리의 농간으로 오지 않았고, 스텐리로부터 생일 선물이라며 준 고속버스 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남의 공간에서 무언가 새롭기도 하고 자기만의 아늑함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늘 혼자 있고자 하는 자유의지와도 통한다.

11장에서 동생의 집을 떠나기에 앞서 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원이 왔을 때도 그녀는 “난 당신을 몰라요! 날 혼자 떠나게 내버려둬요. 제발!”(405)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 혼자만의 꿈을 이루려는 욕망의 표현이며, 그 꿈

이 깨어지거나 잃었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 있고 싶은 욕망, 현실로부터 도피하고픈 의지 때문에 그녀는 타인과 타협할 줄 모른다. 그녀의 동생과도 이어보려 했지만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미치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스탠리를 만나자마자 직감적으로 그가 마치 자기의 사형집행인 같이 느꼈다고 말한다. 과거의 어둠과 현재의 불확실성, 또 주변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병든 사람만이 깊고 성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슬픔이 인간의 진실을 낳게 하고 슬픔을 체험한 이들만이 진실한 마음을 지닌다고 보았다.

블랑쉬는 고향과 고향땅을 모두 다 잃었지만 가슴 속에는 부드러움과 진실을 가득 안고 있었다. 그 밑뿌리가 다름으로 해서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려 해도 쉽지 않다. 반대자가 앞을 막아선 곳을 가리지 않고 불을 향해 질주하는 나방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녀의 환상적 욕망은 반대자의 태도를 더욱 거칠게 만들어 결국에는 이 현실세계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참한 슬픔을 겪게 되는 블랑쉬는 그녀 자신이 부정직과 속임수에 싸여 있음을 알면서도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지닌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투쟁과 직면하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비극적 동정심, 그녀의 불가피성, 그것에 굴복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그녀의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이상, 그녀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강한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락한 듯이 보이는 블랑쉬에게 연민의 감정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록 그녀가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의 이방인이지만 그녀의 파멸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처절한 한 인간의 패배 때문이다.

V. 결 론

윌리엄스의 작품세계는 인물들이 처해있는 절망, 좌절, 소외 등의 인간 심리의 내면과,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된 남부의 현실에 맞서 빛어지는 갈등요소를 사회적, 문화적 새 양상과 잘 대조시켜 묘사하고 있다. 안락한 환상과 냉혹한 현실, 동물적인 성적 쾌락과 정신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사멸해가는 아름다운 옛 남부문화와 새로운 현대 기계문명 등 서로 다른 세계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번성하였으나 새로운 산업 사회에의 물결에 밀려나버린 남부 문화를 보편적인 세계로 확대하여 표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섬세하고 연약한 도망자들의 고통과 갈등을 그렸다.

『유리 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현실과 환상의 갈등은 고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근원적 모습 바로 그 자체이며 아울러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도 한다. 『유리동물원』의 로라는 자의식이 강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정서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녀에게 신체적 불구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려는 의지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고등학교 시절에 동급생으로부터 얻은 ‘블루 로즈’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움과, 또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어색함을 보이며 오직 ‘유니콘’의 세계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을 위로 받으려 한다. 한 순간 짐이라는 구원자가 등장하여 그녀에게 현실에 적응하도록 손을 내밀어 주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떠남으로써 처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아 내면의 세계로 빠져든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인간적 약점을 지닌 존재이다. 로라는 비록 치열하고 비인간적인 외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가 머물고 있는 세계에서 매정하게 내몰기보다는 보다 따뜻한 애정과 이해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임을 윌리엄스는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랑쉬는 이상주의자로서 자신의 성장배경

이 되었던 과거의 낭만적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실과 약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위와 도피의 삶을 살다가 절망의 나락 앞에 서게 되는 비극의 여인이다. 그러나 블랑쉬의 절망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그녀의 나약한 의지 때문이라기보다는 물질문명이라는 환경의 탓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윌리엄스는 그녀가 처한 현실과 위기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블랑쉬와 대립적인 인물 스탠리를 등장시킨 각각 두 인물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구 남부와 신 기계문명을 대표하는데 이들의 갈등은 블랑쉬 내부에 흐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구체화되면서 증폭된다. 결국, 야수적인 스탠리의 힘 앞에 블랑쉬는 무참히 무너진다.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과의 투쟁에서는 패배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블랑쉬에 대해 패배자의 비애라기 보다 오히려 비극의 연민을 느끼게 된다. 그녀의 허위와 이중성에 내재된 본능적 욕구가 그녀의 비극을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라의 수동적인 안주형 자세와는 달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하고 적극적인 몸부림을 보여준 블랑쉬에게 우리는 강한 연민의 정과 공감을 갖게 된다. 또한 그녀가 마지막까지도 찾으려 갈구했던 타인의 따스한 친절과 이해는 윌리엄스가 말하는 현대 비극의 주제인 인간소외의 해결책에 대한 시급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아무도 구원해주지 못한 블랑쉬의 인생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비정한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를 잘 나타낸다고 본다. 물질적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정신적 붕괴현상은 옛 남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고뇌이기도 하다. 사랑과 이해의 결핍으로 인해 블랑쉬는 구원되지 못하지만 이것이 물질문명의 영원한 승리일 수는 없다. 윌리엄스는 그녀의 몰락과정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이상향을 역설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작가 윌리엄스가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친절과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현실을 무시한 채 상대방에게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는 것은 상호관계에 갈등만을 빚는다. 또한 산업사회가 내포하는 새로운 가치규범의 출현은 과거전통가치의 쇠퇴를 수반한다.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이미 몰락해버린 역사적 뿌리의 우월성을 과시한다면 소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윌리엄스의 메시지는 물질적인 세계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인간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섬세한 경고로서 타인과의 진정한 이해와 원만한 상호관계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I. Texts :

Williams, Tennessee. *Sweet Bird of Youth, A Streetcar Named Desire, The Glass Menagerie*. Ed. Martin Browne. New York: Penguin Books, 1977.

II. Reference :

김은숙, 「Tennessee Williams 여성인물에 나타난 갈등의 유형」.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석주, 「Tennessee Williams 희곡 연구-여성, 사랑, 구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장계음,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에 나타난 환상과 상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희주, 「Tennessee Williams 극의 현실 부적응자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규일, 「유리동물원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환상과 현실」.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Berlin, Norman. "Complementary in *A Streetcar Named Desire*" *Tennessee Williams: A Tribute*. Ed. Jac Thrape. Jackson: Mississippi UP, 1977.

Bock, Hedwick. "Tennessee Williams, Southern Playwright." *Essay on Contemporary American Drama*. Eds. Hedwick Bock and Albert Wertheim. Munchen: Max Huer Verlag, 1981.

Cohn, Ruby. "The Garrulous Grotesques of Tennessee Williams." *Tennessee William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tephen S. Stant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Davis, Joseph K. "The American South as Mediating Image in the play of Tennessee Williams." *American Drama and Theater in the Twentieth Century*. Go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5.

Donahue, Francis, *The Dramatic World of Tennessee Williams*. New York: Frederick Ungar

- Publishing Co., 1964.
- Foster Hirsch, *A Portrait of Artist: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Port Washington, N.Y: Kennikat Press, 1979.
- Jones, Robert E, "Tennessee Williams Early Heroines." *Modern American Tragedies*. New York: Macmillian, 1979.
- Kazan, Elia, "Note for *A Streetcar Named Desire*." *Director on Directing*. Ed. Allan S. Downer. Chicago: U of Chicago P., 1962.
- Lewis, Allen, *The Contemporary Theater: The Significant Playwrights of Our Time*.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1975.
- Nelson, Benjamin, *The Plays of Tennessee Williams*. New York: Monrch Press, 1965.
- Porter, Thomas, *Myth and Modern American Drama*. Ludhina: Kalyani Publishers, 1969.
- Rathban, Gilbert L, *Tennessee Williams A Streetcar named Desire*. New York: Simon & Schuster, 1965.
- Robert, James L, *The Glass Menagerie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Lincoln: Cliff's Notes, 1969.
- Stein, Roger B, "*The Glass Menagerie Revisited. Catastrophe Without Violence.*" *Tennessee Williams*. Ed. Stephen S. Stant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 Styan, J.L, *Modern Drama in Theory and Practice 1: Realism and Naturalism*. Cambridge Up, 1981.
- Thomson, Judith J, *Tennessee Williams Plays: Modern, Myth and Symbol*. New York: Peter Lang, 1988.
- Weales, Gerald, *American Dram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2.

<Abstract>

Conflicts between Illusion and Reality in
The Glass Menagerie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In, Bok-So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Il-Sang

The study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conflicts between illusion and reality shown in *The Glass Menagerie* and *A Streetcar Named Desire*. In *The Glass Menagerie*, the Wingfields try to escape from the painful reality by creating their own symbolic illusion based on the Southern aristocratic tradition and elegance before the Civil War. Each member of the Wingfields refuses to face the reality. Being unable to cope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reality, they are all forced to create their own fantasy to hide themselves. The characters are in the course of their struggles against the reality which they do not understand. Williams implies, through various symbols, human-salvation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affection among those who fallen into the helpless situation.

A Streetcar Named Desire, Williams' greatest play,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Blanche Dubois who symbolizes the Southern aristocracy, and Stanley Kowalski who symbolizes the industrialized materialistic world of the twentieth century. This conflict is also the one between idealism and materialism in the moder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industrialized society, while it re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animalistic factors and civilized factors which exist in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s. Above all, this conflict specifies illusion and reality that flow inside Blanche's dualism and symbolizes the modern world's ambivalence between idealism and materialism. Her dualism, at the same time, reflects each human being's irreconcilable separation between civilized factors and barbaric factors.

Consequently, Williams is a real moralist who does not have the negative view of the dark side of the reality and the pathetic aspects of the human beings, but instead asks us to face them earnestly and candidly. He tried to eternally save the lonely and helpless victims in the real world by describing their desperate struggle against reality. Through the message of human being's pathos prevailing in his plays, he paradoxically suggests that we forgive all of the sinners with God's mercy. And suggests that we need clear recognition of our own identities, and true love and understanding of others to cure the wounded heart.

